



교양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무노조왕국 삼성재벌에 도전

천영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처음 원고를 부탁 받을 때는 당장 할 일도 태산 같은데 꼭 20년이 지난 옛날 얘기가 뭐 그리 급하니며 아까운 지면을 매울 정도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물리쳤지만, 편집자의 한마디에 아랫소리 못하고 고집을 꺾었다. 그러면 노동운동사는 무엇 때문에 배우느냐고.

요즘 삼성재벌에서는 노조결성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노조에 관심이 있음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감시망을 조이고 본인도 모르게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공장으로 보내버리기도 하는 등 부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삼성왕국에 노조 깃발을 꽂겠다고 버르고 있으니 무노조경영을 최대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삼성재벌로서는 영당이에 불침을 맞는 격일 것이다. 특히 10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고 건설된 민주노총이 전국총파업을 통해 권력까지 굴복시킨 마당이니 삼성재벌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도전계획과 위임장의 설득

지금까지 삼성재벌 중심사업장에 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은 세 차례



있었다. 하나는 1960년 4.19혁명후 두달만에 일어난 대구 제일모직 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1977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일제당 미풍공장 노동자들의 신규조직결성투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세 삼성중공업에서 조직결성 시도가 있었다. 세번 다 제벌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과 편파적인 개입으로 실패로 끝난 채 이제 20년만에 또다시 노조바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제일모직투쟁은 김낙중선생이 쓴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 한국노총의 '한국노동조합운동사'에 실려 있고 내가 이야기하려는 제일제당투쟁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펴낸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 별달리 할 얘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당시에는 쓸 수 없었던 뒷얘기들이 더러는 남아 있는 듯하여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편집자의 강권도 있었지만 막강한 제벌과 권력에 맞서 신규조직이 얼마나 지대한 일인가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1977년 무렵 필자가 전국화학노조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는 국가보위법에 의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봉쇄되어 있는데다가 '긴급조치9호'에 의한 폭압적인 유신통치시대로 노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신규조직사업 만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화학노조는 1973-77년 사이 65,000명의 조합원을 12만 여명으로 늘릴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 여세를 몰아 무노조의 여성이라는 삼성에 도전해보자는 애기들이 심심찮게 돌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재벌의 노조결성은 다른 사업장의 경우와는 달리 보다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결단이 필요했다. 조직이고 보니 임원과 주요 간부, 특히 위원장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는 대재벌기업에 노조를 만들려면 재벌만이 아니라 이들과 유착되어 있는 권력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1974년에 울산 현대조선소에 3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끝내 노조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재벌의 힘은 막강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화학노조위원장 정동호씨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순수한 인물이었다. 이념적으로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동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고 전국 조직을 돌면서 두어 달씩 조합원 교육을 강행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신규조직의 확대와 비교적 체계적인 활동으로 조직의 신임을 쌓아갔고 이를 토대로 76년 10월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다. 한때 어용노조 간부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80년초 제5공화국의 등장 직전에 전두환 군부에 의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우직하고 야심찬 인물이기도 하였다. 몇 년간의 화학노조 활동과정에서 필자에 대한 신임도 상당히 두터운 편이었다.

1977년 7월초 필자는 조직에 필요한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성공가능성을 검토한 후 정동호 위원장에게 삼성재벌 노조결성 계획을 설명하였다. 위원장은 뜻은 좋지만 잘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예상한 대로였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 필자는 집요하게 취지와 성공가능성을 들어 설득에 열을 올렸다.

공장 안에 선을 대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은 오가작통법으로 묶여 있는 삼성재벌의 노무관리방식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첫날은 뚜렷한 결론 없이 검토해보자는 선에서 끝났다. 두번 세번 집요하게 조직화의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였다. 그 얘기 속에는 설사 실패하더라도 당신의 신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노라는 다짐도 빠뜨리지 않고 진지하게 설득해 나갔다. 이머기를 몇 차례 만난 끝에 마침내 위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천동지! 내가 졌소. 한번 해봅시다.”

몇 날 밤인가 술독이 똥이 나고 서로에 대해 숨김없는 얘기가 오간 사이 쌓여진 자신감과 신뢰의 결과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마침내 77년 8월 화학노조는 4만여 노동자를 거느린 국내 최대의 삼성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조미료 아이미를 생산하던 제일제당 김포공장에 조직결성을 결의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

노조결성 · 노조파괴 · 정면대결

조직방침이 결정되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고 민거리이었다. 공장 안에 선을 대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은 오가작통법으로 묶여 있는 삼성재벌의 노무관리방식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이었다. 총체적인 억압상황 아래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도 감안해야 했다. 누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당시 화학노조는 김광숙이라는 여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김광숙은 당시 19살이었다. 매사에 헌신적이고 열심이었다. 성격이 활달하면서도 치밀한 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필자는 김광숙을 조용히 만나 삼성조직화의 선봉장을 맡기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구체적인 임무와 함께 부닥칠 어려움도 알려주었다. 김광숙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나의 제의에 선뜻 응했다. 곧바로 조직원의 포섭방법에 대한 긴밀한 교육과 토론이 이어졌다. 가능한 본인에 알맞는 활동방식에 중점을

두어 조직화계획이 짜여졌고 공장안과 화학노조와의 연락방법도 정해졌다.

김광숙은 김포 공장부근에 방을 얻고 8월 13일 미풍공장에 임시공으로 입사하여 조직에 착수했다. 김광숙은 회사 관리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10월초 임시공에서 본공으로 승진했다. 2달 남짓 그야말로 극비의 공작을 편 끝에 13명의 동지를 규합하는데 성공하였다. 마침내 1977년 10월 22일 밤9시 화학노조 본부사무실에서 13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대회가 열려 지부장에는 정을순(21세)을 뽑고 김광숙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노총에서 나와 교육 겸 격려도 하고 일요일인 23일에는 조직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수원에서 야외 훈련회도 가졌다.

그러나 탄압은 곧바로닥쳐왔다. 신병치료를 외국에 나가있던 이병철회장이 급거 귀국하고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된다”는 엄명이 떨어진 것이 이 때였다. 10월 24일 서울시에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것을 안 회사측에서는 긴급 과장회의가 열리고 노조파괴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교대직업을 중단하고 전원 전업명령이 떨어졌으며 일체의 출입이 차단되었다. 회사측은 13명을 회사에 감금해 놓고 이사 부장 과장 등이 1대1로 둘러붙어 이틀동안 노조탈퇴를 강요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해 대부분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탈퇴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끝까지 탈퇴를 거부한 김광숙을 회사측은 김포부근의 호텔에 감금해 놓고 공장장이 직접 협박과 설득을 되풀이하였고 가족과 친척, 입사추천자들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김광숙은 굴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화학노조는 100여명의 간부를 동원하여 회사에 몰려가 탄압중지를 요구하였고 회사측은 일단 감금했던 노조원들을 석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3명은 다시 모여 김광숙을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끝까지 싸워 노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신병치료차 외국에 나가있던 이병철회장이
급거 귀국하고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된다”는
엄명이 떨어진 것이 이 때였다.

그러나 그때 뿐, 회사측은 곧바로 탄압을 재개하였다. 전에 받은 노조탈퇴서와 설립신고 취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한편, 다시 조합원을 감금시키고 훨씬 더 혹독하게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화학노조는 10월 27일 오전 7시, 경인지역노조간부 700여명을 동원하여 공장 앞에 집결시켰다. 이미 정문 앞에는 가동경차가 진을 치고 있었고 회사측은 5백여명의 사원들과 방개회사 사원들을 새벽 5시 반경에 미리 출근시켜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예비군 복장을 하고 손에는 격목이 들려져 있었다. 늦가을의 짙은 안개속, 대치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 돌맹이와 벽돌이 날아와 노조간부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자 흥분한 간부들이 담장쪽으로 몰려들었다. 시멘트 담과 철망 담이 무너지고 격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맨주먹인 간부들은 작목과 벽돌로 난타 당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갈비뼈가 나가고 머리가 터지고 2명의 남성간부와 3명의 여성간부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얼마 지나 경찰이 달려들어 양쪽을 갈라놓았지만 회사에서는 다시 벽돌을 날라고 소방호스를 가져오는 등 산가등등한 모습을 보였고 노조측은 연좌농성을 벌이며 분을 삭이고 있었다. 일촉즉발, 또다시 정면 대결의 기운이 높아지자 강서경찰서장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겨우 진정시키고 노조간부들은 일단 그 자리를 철수하였다. 사태가 진정되자 강서경찰서는 사무국장과 필자 등 3명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연행하였다.

인간 이하의 폭력적 탄압

노조결성이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동요하자 노조원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업이 개시되었다. 사키면 밥 한 덩이에 김치 한가지만 나오던 점심식사가 갈비탕, 불고기, 닭곰탕으로 바뀌었고 노동자 면담을 통해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런 한편에 노조원들을 힘든 부서로 이 동시키고 천척들을 불러올려 겁을 주거나 산업시찰을 시키면서 탈퇴를 강요하였다. 특히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김광숙 등에 대해서는 현장 동료노동자들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기 시작하였다. 여성노동자 수십명은 김광숙을 가운데 몰아 놓고 "너 같은 미친 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옷을 찢어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실신상태에 빠뜨리고 얼마 후 정신을 차리면 생산과 사무실로 데려가 "이년을 토막내서 죽이자" "칼로 살점을 조금씩 도려내어 죽이자" "아나 내 손으로 마지죽이지 못하면 자식에게까지 유언해서 죽인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빵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휘어 잡아 현장을 질질 끌고 다녔다. 출근 때 소방호스로 물벼락을 주기도 하고 변소청소를 시키다가 총무과로 이동을 시키는가 하면 정문 옆 예비군 중대로 진출을 시키고 점심 식사는 김광숙만 오후 2시에 혼자 하도록 하는 등 건디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는 사이 회사측은 탄압에 못 견뎌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을 내세워 서울시에 제출한 설립신고를 취하하게 하였다. 이에 화학노조는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검찰에 폭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역시 가제는 개편이었다. 고발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차일피일 지연되었고 구제신청은 마지막으로 김광숙이 해고된지 한참이나 지난 78년 1월31일 예야 판결이 나왔다. 내용인즉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법률상의 조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었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고발사건을 종결짓고 말았다.

중앙정보부의 해고압력

이처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은 당시 신문과

모든 노동조합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노조로 뭉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재벌의 어떤 탄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에는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주간 시민'이라는 주간지가 "이병철회장은 노조를 싫어한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지만 이 기사 때문에 무기 정간되는 보복을 당하였다. 11월 17일 김광숙이 해고된 것을 끝으로 노조가 와해되자 이번에는 중앙정보부가 화학노조에 탄압의 칼을 디밀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는 정동호 위원장에게 이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필자와 사무국장, 조사부장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노총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던 위원장과 간부들이 받을 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화학노조는 조직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필자는 중앙정보부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책임은 나 혼자 진다.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고심을 거듭하던 위원장은 필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협상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던 중앙정보부도 끝내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김포공장 투쟁이 일어난지 석달 만에 위원장은 본조 간부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했다. "현실적인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잠시 시간을 벌자" 결국 나는 그해 11월 11일 전국화학노조를 떠났다.

그 후 필자의 원직복직 문제가 노동계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었으나 중앙정보부는 그 때마다 제동을 걸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정동호 위원장은 나에게 한국노총으로 올 것을 제의했다. 필자는 화학노조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중앙정보부는 그것도 안된다고 다시 제동을 걸었지만 노동계 여론에 밀려 노총에서 일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삼성재벌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나올까? 아마도 그때와 다름없는 악랄한 방식들이 동원될 것이다. 오히려 더욱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노조로 뭉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재벌의 어떤 탄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